

광주시 대규모 투자협약...친환경차 산업 탄력

국내외 23개 기업 917억원 투자
광주창조경제센터 기업 육성 성과
수소차 기업들 빛그린산단 집적화

광주시에 수소전기차 핵심부품 및 에너지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는 등 미래친환경차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멧텍·㈜이엘티·㈜씨에이치에프 등 국내외 23개 기업과 투자액 917억원, 고용 620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유형을 보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집중 육성하는 수소전기차 관련 기업인 ㈜코멧텍을 비롯한 7개사가 286억원, 에너지산업 분야 ㈜이엘티를 비롯한 11개사가 355억원, 외국인 자본투자가 이뤄지는 ㈜씨에이치에프와 금정공업(주) 2개사가 123억원, 자동차 부품분야 ㈜창조이엔지가 33억원, 전자부품분야 ㈜다원엔지니어링이 30억원,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하남중공업이 9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1기 기업인 ㈜코멧텍은 40여년 간 미국 기업의 독점기술이었던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수소이온을 전도시키는 핵심 부품인 불소계 고분자 전해질막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해 자동차 연료전지용 강화막 제조를 위한 신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하이리온산업(주)는 국내 최초 극저온 액화수소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하고 수소액화, 액화수소저장



윤창현(가운데)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코멧텍, ㈜이엘티, ㈜씨에이치에프 등 국내외 23개 기업과 투자액 917억원, 고용 620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장 및 이송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이동식 수소스테이션을 개발·확산 등 광주가 수소산업 확산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사업 구상을 갖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이엘티는 소형 전자 부품 장치를 이용해 연료전지용 백금촉매, 전도성 금속 나노입자, 비파괴검사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백금촉매 양산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향후 본격적인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일본기업 리켄스프, 가네우후즈, 가네료헤조 3개사로부터 500만불을 투자받은 ㈜씨에이치에프는 총 93억원을 투자해 해조류 가공 공장을 설립, 일본으로 전량수출

하고, 향후 제휴한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덴마크 기업 금정공업(주)은 수소처리용도의 소형펌프에서부터 건설용, 홍수방지의용의 초대형 펌프에 이르기까지 주문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설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모기업인 세계 최대 펌프생산업체인 그린포스(Greenfos)가 한국계열사 3개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광주 금정공업(주)의 제2공장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대표기업인 하남중공업(주)은 초대형 CNC, NC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금형원자재, 선박엔진부품 등을 양산하기 위해 진곡산단에 올해 말 착공해 본격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수소전기차 핵심부

품기업 7개사가 빛그린산단 중심에 집적됨에 따라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에너지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선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는 136개 기업과 투자액 1조 628억원, 신규고용창출 643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분야를 보면, 에너지 분야 56개사 3819억원, 자동차 29개사 2714억원, 가전 10개사 1150억원, 광산업 5개사 175억원, 의료 6개사 260억원, 금형 및 기계 16개사 1802억원, 기타 14개사 708억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청년들 광주서 다양한 의견 공유

‘청년도시 컨퍼런스’ 막 내리

청년 당사자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년문제와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개최한 2016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청년은 시민이다:시에서 권리로’를 주제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5·18 민주광장과 아이플렉스광주, 광주청년센터다솜에서 열린 2016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청년당사자와, 지방정부회의, 해외네트워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각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져 청년정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5·18민주광장에 펼쳐진 청년당사자 회의는 ▲광주청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국대학생동아리연합 티움 ▲광주·전남 UNPO ▲청년녹색당 파당파당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복지창작소 터 ▲동네주민과전국청년모임 등 총 9개 주제 테이블이 운영돼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정부회의는 ▲생존할 권리 ▲자립할 권리 ▲일할 권리 ▲참여할 권리로 세션주제를 나누어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 제공, 경제·사회주체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청년정책의 대상을 연령으로 구분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청년층 내부의 계층 차이를 세분화하고,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 발생하는 장기 미취업, 불안정 노동과 잦은 이직, 구직 단념 등 청년 내부의 새로운 취약계층을 우선적인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해외네트워크 회의는 중국과 청년중심의 교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을 주제로 청년창업자들이 정보와 활동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국의 청년창업 사례발표가 있었고, 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와 협업,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스쿨도 운영돼 중국의 높은 창업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



놀면서 배우는 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광주시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고(Go)! 고(고)! 릴레이’를 열고 문화공연과 메트로 골든벨 퀴즈 등을 펼쳤다. ‘고고릴레이’는 도시철도 2호선 예정지 내 학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도시철도의 장점을 알리며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청소년대상 문화이벤트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시, 에너지 소비 ‘0’ 건물 개발사업 선정

국비 60억원 확보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부문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R&D)사업이다.

광주시는 관내 기업의 제안에 따라 빠르게 호남대,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로에너지빌딩 요소기술 패키지 융복합화 및 실증연구기술개발’ 사업명으로 신청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의 산업간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시장기반 기술개발 보급

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내 기업 (주)하이코리아(대표 박재동)가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광주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부품연구원, (주)넥스트스퀘어, (주)지티랩, (주)알파시스템즈가 참여한다.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시비 6억원(예정), 민자 21억원 등 총 87억원이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통합설계모델을 표준화하는 기술개발과제로서 ▲패시브(단열, 기밀성, 조명 등) ▲액티브(신재생에너지, 고효율보일러 등) 4개 과제와 실증사업 1개로 구성됐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영(Net Zero)이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매실 특화 일자리 사업, 고용부 장관상

광주시 북구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시행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일자리 브랜드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시행 및 발굴사업 등 2개 분야 사례를 평가했다.

북구는 ‘도심 속 매화향 주민공동체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이 창의성, 실현가능성, 타지역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행사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로젝트’는 북구 매곡동의 명물인 매화를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다.

매실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 등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실 생산·가공·판매·체험 시스템의 체계적으로 구축해 마을 기업으로 확대 육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으로 앞으로 3년간의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번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감정가 55억

▶ 매 가 38억

▶ 대출 27억 가능

※ 보증금 6억 월수익 3,000만 ※

▶ 실투자 5억

1층 (상가) 120평 (식당 입점준비)

2층~7층 (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 (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010-6670-9800

사무실 임대 북구 우산동 1층

구호전 / 안보회관 사거리

1층 - 45평

시설 완비 / 즉시입주 / 위치 최고

▶ 보 1천 월 60만

첨단 사무실 임대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 45평

천변로 전망 좋음

사무실 최적합 / 주차완비

▶ 보 2천 월 60만

010-7384-7800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평택 신도시 5300만평) (현역지구 70만평)

▶ 110만평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역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대 후회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조건

※ (총 7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10억

▶ 전체 매가 16억

※ 토지 2억 ~ 30억까지 다량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 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62-511-7800 010-6832-9700